



건강상식(韓方)

—용규(龍葵)—

자료제공 : 박진성 원장

- 한의학 박사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외래교수 역임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회원
- 현) 오승한의원 원장 02)534-2133



I. 처음에

어릴때 산에 다니면서 까만 열매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상처나 아토피, 습진 등 피부질환에 좋은 까마중을 소개합니다.

용규는 가지과에 속한 1년생 초본인 까마중의 쏘초(전초)를 한약재로 사용하여, 까마중이, 까두라지라고도 부르며, 苦菜(고채) 天茄子(천가자) 天天(천천)이라도 부르기도 하며, 밭이나 길가에 자라며, 5-9월에 흰꽃이 피고 열매는 초록색에서 익으면 검정색으로 바뀌며 달기는 하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II. 효 능

용규는 쓰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肝(간) 脾(비) 肺(폐) 膀胱(방광) 경락으로 작용하며,

清熱解毒(청열해독), 散結消腫(산결소종), 利尿通淋(이뇨통림), 祛濕止痒(거습지양)의 효능이 있다.

清熱解毒(청열해독), 散結消腫(산결소종)

두가지 효능이 동시에 있어 편도선, 인후나 후두의 염증, 기관지염, 복통 설사 등의 대장염 증상이 있을 때 염증과 열을 풀면서 붓거나 종기처럼 있는

것을 없어 주며, 근래에는 각종 암 증상에 이용되고 있다.

利尿通淋(이뇨통림)

신장염 방광염 질염 등으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냉이 흐르거나 부종이 있을 때 사용하며, 신장이 약한 사람의 고혈압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祛濕止痒(거습지양)

신선한 용규는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며, 짓물이 나면서 가렵고 발적이 되는 습진이나 아토피 환부에 신선한 즙을 바르거나 다려서 발라주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 열이 많은 체질이어서 편도가 잘 붓거나 피부가 좋지 못해서 자주 습진이나 종기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머리에 피부염이 자주 오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열을 풀면서 습진에 좋은 까마중을 적극 추천합니다.